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불편한 진실’

송기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그리고 무소속이 3석을 차지했다.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얻었던 의석이 모두 167석이었으니 15석이나 줄었지만 선거 몇 달 전 120석도 어렵다는 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완승이나 다름없다.

반면 18대때 81석이었던 민주통합당은 46석을 늘려 127석을 차지했지만 애초 제1당은 물론 과반수 의석까지 노렸던 것을 생각하면 참패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넘기면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새누리당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선거를 이긴 것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왜 그랬을까?

‘反한나라 非민주당’은 최근 선거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유권자들의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온 말이다.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과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한나라당에 대해 반대하지만 내부 분열과 정치적 추진력이 고갈돼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안철수 교수의 지지를 받은 박원순 시민단체대표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이 유권자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모색했다.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과감한 변신을 꾀했다.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신한국당이 선거 때면 어김없이 써먹었던 ‘색깔론’을 생각하면 이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내용이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제도나 기구도 그대로이고, 당헌 당규도 큰 변화가 없다. 사람들도 개혁적인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다기보다 친이 중심에서 친박 중심으로 이동한 것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사람과 제도가 거의 그대로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세력, 한국노총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으로 변신했다. 또 선거 직전에 진보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논란이 있었음에도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4·11 총선은 ‘反한나라 非민주당’의 구도에서 빠져나간 새누리당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발 빠르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역사인식 논란, 여성 비하 논란, 금품살포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이들의 공천을 철회시켰다. 임종석 후보의 사퇴, 막말 논란의 김용민 후보와 관련되어 민주통합당이 우왕좌왕했던 모습과 비교되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좋은 후보를 찾기 위해 더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내용과는 별개로 새누리당의 변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누리당의 변신은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을 포함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의해 신속히 전달되었다.

선거는 이제 끝났다.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성추문과 돈봉투, 부정부패한 한나라당과는 다른 당이라고 했던 새누리당이 성추문과 논문베끼기로 논란이 된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와 관련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의 말이 떠오른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

〈전북대교수·전 콜롬비아대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칼럼

애국, 어렵지 않아요

이의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애국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애국가나 애국자라는 단어를 접하면서도 정작 애국이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여기 작은 사례를 들어본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찾아가면 어떨까? 아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적시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급한 환자나 위급한 범죄 상황에 놓인 장애우를 위해서는 수화가 가능한 경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화로 장애인 봉사에 헌신하는 경찰관 하삼종경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수화는 물론 자비를 들여서 장애인봉사에 헌신하는 꽤 유명한 경찰관이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청각 장애인의 고충을 알고 수화를 배운 하경감의 장애인 사랑은 한마디로 지극정성이다. 농아 장애우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위급한 농아환자의 후송조치,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여인이 22년간 헤어진 가족을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곳저곳의 경찰서에서 수화통역을 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 수화 교관으로도 활동하며 수화교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바쁜 일과 봉사를 병행하면서도 늦은 공부도 열심히 하여 방송통신대학을 나와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우리 사회는 하삼종 경찰관처럼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하는 노력이 내일을 밝히고 있다고 본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사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들의 활동이나 행위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봉사 아니 애국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흑자는 애국이란 말이 구태의연하고 무겁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나아가 애국은 글로벌 시대의 역행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면 애국은 개인의 행태로 규정될 수 있다.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며 남을 배척하기보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일이 애국이라면 얼마나 간단한가! 따라서 하삼종 경찰관의 행동은 단지 개인의 선행보다는 ‘생활 속의 애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딱딱한 경찰의 이미지를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 이런 것이 애국이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천안함 용사들의 2주기 넋을 기린 지도 달포가 지났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이들의 희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다. 선열들의 참된 뜻과 용기 있는 행동은 단지 공공기관에서 일과성 행사 메뉴이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굳건히 하는 명분으로서도 성찰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한 나무가 자라는데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 개인과 국가의 근본이 형성되려면 조국이라는 토양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로부터 ‘지켜져 왔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위상은 K-POP, G20정상회의 의장국, 유엔사무총장 및 세계은행총재 배출, 무역 7대 강국 등의 이미지를 통해 자랑스러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국의 상징되는 선열들이 남긴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번영시켜 후손에 물려주려면 각자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 또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삼종 경찰관처럼 어려운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측은지심’이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물처럼 흘러내렸으면 한다. 이러한 선행이 일상처럼 행해지고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면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추게 되고 이들이 남긴 국가와 민족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기 고

광주, 4·19 상징 시내버스 탄생

이병열

광주 4·19역사 상징물로 탄생한 419번 노선 버스는 문화의전당역(남) ⇔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이 버스는 광주 4·19혁명이 최초 발상했던 도로 419로를 통과, 광주 4·19혁명의 발상지인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고려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다.

특히 4·19도로는 광주 4·19혁명 주역들의 발자국과 정의함성, 혁명의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면 교문옆에 광주 4·19 민주혁명발상지라는 사적지 기념탑이 24시간 눈에 띄어 광주에 4·19 민주화역사가 있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계림초등학교를 지난 사거리에서는 멀리 광주 4·19 민주혁명기념관이 보이는 4·19역사의 거리다.

광주 4·19주역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 민중항쟁에 의해 이룩한 4·19민주화 역사의 3대 진원지인 광주 4·19 민주화역사를 모르고 있는 광주시민이 대다수이며 알고 있는 시민조차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가 4·19역사가 존재함에도 역사를 기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광주시내에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를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이나 기념물은 눈에 자주 뜨이나 4·19 민주화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광주 4·19주역들의 소망은 많은 시민과 후배들이 광주 4·19역사를 기리고 숭고한 정신이 계승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역들은 2000년부터 민간인 비영리단체인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를 설립 주역들의 성금을 모아 광주 4월 혁명발상탑, 광주 4·19혁명 그날 시비, 4·19사적지기념탑, 4·19로 등 상징물을 조성 광주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광주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 14일부터 광주에 419노선번호를 부착한 419번 시내버스가 빵빵빵 정의의 함성을 지르며 운행됨에 따라 많은 광주 시민이 4·19역사를 재인식하고 기릴 수 있게 되었다.

광주 4·19민주화역사를 알리는 419시내버스와 광주 5·18민주화 역사를 인지케 하는 518시내 버스는 의향 광주, 민주화 도시 광주, 민주인권평화의도시 광주상징물로 광주위상을 한층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419시내버스의 운행으로 70대 나이의 광주 4·19주역들은 소망했던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으며 운행이 개시되는 2012년 4월 14일 문화전당승강장(남)에서 419버스운행 기념행사를 갖고 시승을 했었다. 광주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에 협조한 광주시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금후 4·19 기념탑, 4·19공원 등 환경이 조성되어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 광주가 세계속의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컴퓨터 친환경제품 대체해야

최근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소각을 막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화석연료 사용도 줄이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자는 노력 등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영국의 한 연구소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영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컴퓨터가 항공기만큼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사이버-온난화’ 경고령이었다. 조사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500만t에 이른다. 이것은 영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0만대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하니 놀랍기 그지없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정보기술 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대를 차지하며, 항공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PC를 한 대 생산하려면 1.8t의 화학성분과 화석연료, 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연간 0.1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컴퓨터가 보통 3년 정도 사용된 후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카드뮴과 수은으로 땅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인 컴퓨터와 정보기술 장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녹색정보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유난히 IT분야가 강하고 가정마다 PC가 없는 집이 없으며 크고 작은 도시마다 즐비하게 눈에 띄는 것이 PC방인 우리나라 아닌가. 그 PC방은 24시간 PC가 작동을 하고 있고 전국의 사무실에서도 PC가 하루 10시간 가까이 사용된다. 어차피 컴퓨터를 대체할 기기가 없고, 또한 PC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PC를 좀 더 환경친화적인 컴퓨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남구청, 신청사 입주 전 교통대책 서둘러라

광주 남구청이 내년 3월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백운고가 철거가 광주 U대회와 맞물려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주차장 확보 등도 지지부진해 구청 사무실과 상가시설이 대거 입주하면 신청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내년 신청사 입주를 목표로 현재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지하 6~지상 9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1층 일부와 5~9층을 청사로 활용하고, 1층 나머지와 2~4층을 상가로 민간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백운교차로는 현재 독립로, 대남대로, 서문로, 봉선로, 회재로 등 5개의 도시·간선도로가 교차하면서 교통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수준인 F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 청사 개소시 출입 차량만 하루 평균 1300여 대로, 주변 진출입로 및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5개 차로의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하거나 교차로 간격을 줄여 이들 차량을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자체 교통영향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독립로에서 돌고개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의 평균 대기행렬이 300m, 최대 대기행렬이 504m로 신호를 2~3차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백운로타리 일대는 현재도 광주시내에서 상습 정체지역으로 이름난 곳임에도 신호체계 변경 등에 의존해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인근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신청사 입주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 입지 선정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교통대란까지 겪게 해서야 말이 되는가. 지금이라도 주차공간 확보 등 최선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익·만족도 낮은 지역축제 ‘수술’ 필요하다

강진청자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평가 받는다. 광주충장축제도 점차 지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축제의 속내를 보면 실익이 별로 없다. 방문객 소비 지출과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11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전국 40개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소비 지출은 1인당 5만281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치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축제는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강진청자축제는 방문객 1인당 지출이 3만670원에 머물러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됐고, 만족도도 낮다고 한다. 또 축제와 연계해 청자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쇼핑비는 전국 평균(1만5000원)에 크게 밑도는 3510원 수준이다.

대나무축제도 방문객 1인당 지출이 3만950원에 그쳤다. 죽세공품 판매가 가능한 축제인데도 쇼핑비는 2900원에 불과했다. 충장축제도 1인당 방문객 지출액이 4만4200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축제를 열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방문객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청자축제나 대나무축제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있다고는 하나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축제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방문객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만족도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충장축제 역시 퍼레이드나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면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無 等 鼓

삼촌설(三寸舌)

혀의 길이가 세치 정도로 짧은 혀를 가진 사람의 구변(口辯)이 좋은 것을 비유해 삼촌설(三寸舌)이라고 한다. 기원전 257년 진(秦)이 조(趙)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자 조나라 왕은 평원군 조승을 남방의 초나라로 보내 맹약을 체결하려 했다. 당시 체결단 가운데는 모수란 사람이 있었다.

앞서 평원군은 20명의 인재를 체결단으로 선발하려 했으나 마지막 1명을 뽑지 못했다. 그러자 식객(食客) 모수(毛遂)란 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평원군을 탓하며 자신을 스스로 천거했다. 그의 행동은 무례했지만 평원군은 모수를 일행에 끼워 넣었다.

초나라 왕을 찾은 평원군은 그와 밤새 담판을 벌였으나 새벽까지 결말이 나지 않았고 체결단 모두 초조히 문밖에서 서성거릴 뿐이었다. 이때 모수가 칼을 잡고 초왕에게 달려가 “대왕의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저와의 거리가 겨우 열 걸음에 불과하니 대왕의 목숨은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말에 초왕은 합종의 맹약을 맺었다. 평원군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모 선생의 세치 혀는 100만명의 군사보다 강했다(三寸之舌 彊於百萬之師)’고 하며 자신의 상객으로 삼았다.

세치 혀를 움직여 역사를 바꾼 예는 많다. 전국시대 장의는 진(秦) 혜문왕의 객경이 되어 유명한 연횡책을 펴 진시황이 천하통일 하는데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한비자는 혀가 둔해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사마천은 세치 혀를 잘못 놀려 궁형을 당했다.

최근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준데는 선거 막판 김용민의 막말 파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방송인 김구라는 최근 ‘정신대 막말’로 인해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김구라와 김용민은 세치 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시 세치 혀를 잘못 놀려 추락을 맞았다. 말이란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